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이종호 사무총장

[학력]

1973 서울 환일고 졸업
1980 인하대 기계공학과 졸업

[주요경력]

1994 현대엔지니어링 해외영업본부장
2011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전무)
2012 한국전력공사 입사(전무)
現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 사무총장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형태의 에너지 자원의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신기술을 전시하는 에너지 올림픽!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총회 개최를 한 달여 앞두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점에서 이종호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에너지총회의 의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목표를 들어보았다.

199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너지총회는 인도(1983년)와 일본(1995년) 이후 아시아지역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다. 1995년 일본 동경에 이어 18년 만에 올 10월 대구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무총장은 “그 동안 총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에너지 강국들의 목소리를 담는 행사였으며, 2013 세계 에너지총회는 에너지소비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세계 에너지소비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참여와 일본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의 대표단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는 에너지수요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가장 빨리 증가하는 지역이면서 에너지 빈곤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증대가 세계에너지 시장을 주도 하게 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아시아로 쏠리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나라는 총회에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확대를 불러 매우 적절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세계 에너지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총회는 전 세계의 정계, 에너지 산업계, 학계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내어 놓고,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에 열리게 되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대구총회는 UN의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SE4ALL)’선포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세계적인 에너지 모임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전 세계 13억 인구가 어떻게 풍족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도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APEC, WTO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에너지와 관련 UN의 역할도 다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 에너지 문제들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2차 세계 에너지총회의 주제는 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으로 에너지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확보에 대한 논의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이번 총회는 에너지 삼중고(trilemma)인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확보 ▲에너지 평등성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확보 : 전 세계 에너지의 87%가 화석에너지로, 언젠가 완전히 소모된다. 이 한계성을 대체하기 위해 미래 지속가능한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에너지 평등성 : 전 세계 13억 인구가 에너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
- 환경오염 문제 : 선진국은 클린에너지를 쓰고 싶어하고, 후진국은 값싼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한다. 그런데 값싼 에너지를 쓰면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긴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 사무총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중심은 가장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비롯되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직결됩니다.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에서 클린에너지인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보급을 위해선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뒤얽힌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작업이 이번 총회 개최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wer Interview

2013 세계에너지총회의 주제인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은 2010년에 결정되었다. 그 때만 해도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이슈는 원유의 가격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각 에너지 분야의 전환기에 필요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논의와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3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는 각종 학술회의와 패널 토론 등 60여개가 넘는 다양한 세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 에너지 장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에너지 기업 CEO들로 구성된 220여명의 연사들을 확보하였다. 현재까지 확정된 연사리스트에는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 각 지역의 개발 은행장,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회장과 지멘스 에너지, 로얄 더치셸 CEO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 정부, 국제기구의 리더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확정된 연사들은 에너지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명실 공히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리더들이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에너지 총회의 세계적인 명성과 입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 현장을 경험 할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에너지장관회의, 약 200명의 연사강연 및 이슈 토론, 논문·보고서 발표, 산업전시회, WEC집행이사회, 그 외 산업시찰 및 동반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된다.

총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22,000m²로 규모의 산업전시는 최대 2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국내·외 에너지 기업 60여 곳이 총회 스폰서 신청을 완료, 현재 총 전시면적의 93%가 판매 완료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외 에너지 기업 40곳이 총회 스폰서 참가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울러 행사가 열리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구의 지역적 색채를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는 등 국제행사로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 및 부대시설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앞으로 약 한 달가량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연사 초청, 스폰서 유치뿐만 아니라 전시회 준비, 숙박, 교통, 보안 등 2013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는 막바지 일정관리를 하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서도 '에너지총회지원단'이라는 총회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통이나 수송, 숙박, 보안, 관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2/3가 밀집한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 저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인도, 중국과 같은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개최지로 지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시아는 계속해서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2030년에는 현재 에너지 소비량의 두 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년을 기념한 원자력관련 세션, 북미 셰일가스 대규모 개발의 영향 등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당면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무총장은 “아시아는 에너지 혁신과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찾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녹색 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이용과 스마트 기술 혁신을 결합한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 개발에 글로벌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에너지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저감 등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최근 급성장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발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에너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 간 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 에너지 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의 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 4,8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적인 효과를 떠나서, 전 세계의 에너지 리더들이 총 집결하여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또 최대의 비즈니스의 장이 될 권위 있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고, 대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VIP들에게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유치는 물론 참가자들의 숙박·쇼핑,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세계 에너지총회에 참석하는 5,000여명의 에너지 산업계, 학계 및 기술계 지도자들에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해 놓은 에너지 산업현장, 자립 에너지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이 이끄는 산업기관, 학술기관, 기술단체들과 접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는 세계화가 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꿈인 산전국(産電國)으로의 도약이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 된다”고 말했다.

비단 에너지 분야 뿐 아니라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동반자들이 대구를 찾을 경우 각종 문화 행사 및 동반자 관광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구와 우리나라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산업화 및 근대화 주역도시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포함한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의 산업리더들이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중심지인 대구 방문을 통해, 국내 에너지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의 산물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그 리더십을 확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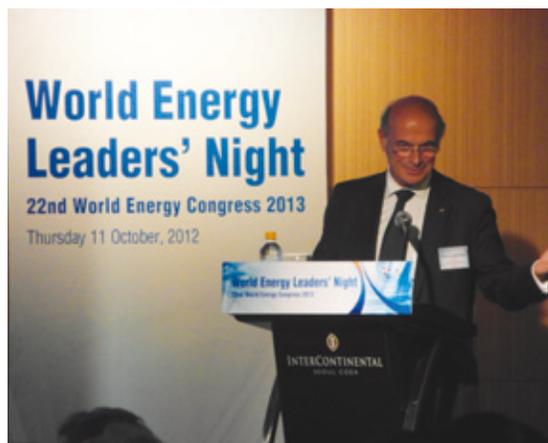
Power Interview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6여년 전만해도, ‘원유의 가격’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더 복잡한 이슈들이 공공과 민간부문 에너지 리더들의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늘날 에너지 전망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진 것이다.

에너지 리더들은 세계에너지협의회에서 발행하고 이번 세계에너지총회에서 공개될 세계에너지 시나리오(World Energy Scenarios)와 이슈 모니터(Issues Monitor)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계에 잠재한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 토론하고, 세계에너지 자원 조사(World Energy Resources survey)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과 관련하여 에너지 믹스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을 도모해야 하는 중대한 단계에 있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급변의 시기에 에너지 각계의 리더가 모두 모이는 행사를 주최하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국제적 논의 사항들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간파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핵심 목표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연사들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명실공히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리더들이며, 경제, 정치, 사회 부문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 총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참고: 주요 연사 리스트〉

글로벌 에너지 기업	사우디 아람코 회장/로얄 더치셸 대표/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도쿄전력 사장/남아공 국영 전력회사 에스콤 회장/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사장/프랑스 전력공사(EDF) 회장/지멘스 에너지 대표 등
각 지역 개발 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DB) 국장/아시아 개발 은행 총재/브라질 개발 은행장/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 최고경영자/사우디 이슬람 개발은행 총재 등
정부기관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사우디 전력부 차관/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앙골라 석유부장관/탄자니아 에너지 및 광물부 장관/남아공 에너지 장관/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등
국제기구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UN 산업개발기구 (UNIDO) 총재/국제 에너지 기구 (IEA) 사무총장/OECD 원자력 기관 사무국장/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등

총회에서는 대주제인 ‘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 아래 에너지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예정이다.

에너지 각 분야에서 60여개가 넘는 세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화두로는 셰일가스 생산으로 에너지

계 재편과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문제의 대두, CO₂ 거래가격의 불확실성, 청정 에너지 기반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정 모델의 필요성 대두,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글로벌 기구의 역량 강화와 기술 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 증대,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국 역할 증대, 13억 에너지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이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중심은 가장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비롯되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직결된다.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에서 클린에너지인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보급을 위해선 막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복잡하게 뒤얽힌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작업이 이번 총회 개최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년을 기념한 원자력 관련 세션, 북미 셰일가스 대규모 개발이 세계적인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미래에너지리더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고〉

- 미래에너지리더 프로그램(Future Energy Leaders Programme)
 - 세계 92개국에서 100여명의 젊은 에너지 관련자들이 총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특별 토론세션과 워크숍에 참여
-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Developing Country Programme)
 - 총회 참석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게 등록비와 숙박비 면제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참가 유도
 - 47개국 : WEC 지정 34개국 + UN기준 13개국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전력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 높은 화석연료 의존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기술의 안정성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늘어가는 전력수요 대비 전력 공급력의 부족에 따른 단기적 수급불안이 주요 이슈다.

국내 전원은 화석연료에 대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약 70%)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세계적인 탄소배출 규제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의 세 가지 이슈를 아우르는 총회의 논의에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에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다루어 여타 한 가지 부문의 에너지 업계에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이 표명되고 논의 과정에 반영되어 종합적인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Power Interview

이번 총회는 에너지 논의의 주 무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해당한다. 에너지 문제는 개도국과 선진국,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 이해가 엇갈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아시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조정자 역할에 가장 적합한 국가일 것이다.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인류가 안고 있는 에너지 과제들이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이번 총회는 우리 정부에게 추계국으로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이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Hub)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너지총회라는 권위 있는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 뿐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 우리나라가 한발 더 나아가 주요 어젠다를 구성하고 에너지 전환 시기에 국제적 논의 사항들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세계곳지 주요기업들과 다양한 공동투자나 제휴 등 귀중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사무국은 에너지 업계의 최대 행사이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중 명실공히 규모 및 참가자 면에서 최대의 국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에너지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에너지 산업은 국제무대에서 크게 인정받게 될 것이며, 이번 총회가 통해 세계 속에서의 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위치를 제고하고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이번 총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요청되고 있다. 에너지 이슈는 이제 국가적 차원을 넘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인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안과 과제, 대응책 등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는 결국 미래의 에너지원 확보라는 숙제에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공유케 한다는 점 또한 이번 행사의 취지이다.

이 사무총장은 “총회를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과 향후 나아갈 방향은 물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국가의 경험과 해법에 대한 해안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과 정부에게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총회를 계기로 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고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내 에너지 기업들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잠재적인 파트너, 투자자들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네트워킹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두 번 다시 맞이하기 힘든 기회이다. 국내 기업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이유이다. 